

HD한국조선, 이달에도 2조원대 수주...훈풍에 돛달아

LPG선 등 14척 계약, 68척 수주
삼성중 16척, 한화오션 12척
분기 합산 영업이익 2조대 전망



HD현대삼호에서 건조해 지난 2024년 인도한 17만 4000 입방미터(m³)급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HD현대

HD한국조선해양이 이달에도 총 2조원대 대형 선박을 대거 수주하며 연간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1분기에만 연간 수주 목표의 20% 이상을 채운 가운데, 중동사태에 따른 물류환경 변화와 무역질서 재편, 미국의 대중국 봉쇄 등 요동치는 국제해운 환경속에서 고부가가치 선박수요를 끌어담는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다.

8일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일과 7일 총 1조9710억원 규모의 선박 14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일에는 그리스 선주와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각각 9만m³급 LPG 운반선 2척과 4만m³급 LPG 운반선 2척 등 총 4척을 수주했다. 계약 금액은 각각 3498억

원, 2393억원이다. 해당 선박은 HD현대삼호와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오는 2028년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이들 선박에는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이 탑재된다.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는 6117억원 규모의 5만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8

척도 수주했다. 이 선박은 HD현대중공업 합정·중형선사업부에서 건조해 오는 2029년 상반기까지 인도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는 소난골 쉬빙 홀딩 리미티드로부터 7702억원 규모의 17만4000m³급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해당 선박은 HD현대삼호에서 건조해 오는

2029년 하반기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68척, 72억5000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233억1000만달러의 31.1%를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12척, 컨테이너선 20척, LPG·암모니아 운반선 9척, 원유운반선 7척, PC선 20척이다.

조선업 전반의 수주 흐름도 견조하다. 지난 5일 기준 삼성중공업은 16척, 31억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의 약 22%를 달성했고, 한화오션은 12척, 24억3000만달러를 수주해 지난해 연간 실적의 약 24%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주 확대는 실적 개선에도 반영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약 1조92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1조1902억원, 한화오션은 48.2% 늘어난 3833억원, 삼성중공업은 138% 증가한 348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상 물류 환경을 변화시키며 선박 발주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석유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부 선사들이 항로를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등 운항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상승 영향으로 탱커, 가스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종의 발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dhale@metroseoul.co.kr



metro

LG전자, 혁신 에어케어 솔루션 대거 공개

에어페어 2026

금속유기골격체 소재 필터 기술 선행
퓨리케어 시스템 공기청정기 등 소개



모델이 노벨화학상 소재 금속유기골격체(MOF) 필터가 적용된 'LG 퓨리케어 AI 오브제컬렉션 360° 공기청정기 M7'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노벨화학상 수상 핵심 물질인 금속유기골격체(MOF) 소재를 적용해 유해가스 제거 성능을 극대화한 차세대 필터 기술과 공간 맞춤형 에어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는 8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기후테크 공기업박람회 '에어페어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LG전자는 차세대 필터 기술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춤형 혁신적인 에어케어 솔루션을 대거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주요 제품은 노벨화학상 수상 핵심 물질인 금속유기골격체(MOF)를 적용한 차세대 필터다.

MOF는 미세기공 구조를 통해 적은 양으로도 매우 큰 표면적을 구현하는 신소재로, 유해가스나 냄새를 강력하

게 흡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소재가 적용된 'M7 필터'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이 필터 2개가 탑재된 공기청정기 한 대는 축구장 11.7개 크기에 달하는 표면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또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요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 등 먼지 4종과 TVOC, 포름알데히드, 암

모니아 등 유해가스 3종 등 8가지 오염원을 감지해 보다 제거한다.

LG전자는 이번 에어페어에서 처음 공개하는 'LG 퓨리케어 시스템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 맞춤형 에어케어 솔루션도 선보인다.

이번 청정기는 천장에 설치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바닥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거실뿐 아니라 드레스룸 등 작은 방에서도 공간 제약 없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LG 퓨리케어 시스템 공기청정기는 프리 필터와 미세먼지 필터, 탈취 필터를 기본 탑재했다.

LG전자는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에어로미니'와 'LG 퓨리케어 AI 오브제컬렉션 윌핏'도 소개한다.

이밖에도 전시장 안에 거실과 침실, 욕실 공간을 꾸며놓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에어컨, 욕실 환기 시스템 'LG 퓨리케어 바스에어시스템' 등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을 제시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대한항공은 8일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MUAV 양산 1호기 출고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항공,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 출고기념식... 300여명 참석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양산에 참여하며,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실는다.

대한항공은 8일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MUAV 양산 1호기 출고기념식'을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대한항공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한화시스템 공동 주최로 열린 출고식은 합동참모본부, 공군,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민·관·군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출고된 1호기는 길이 13m, 폭 26m에 강력한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했다. 이 무인기는 고도 10km 이상의 상공을 날며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할 수 있다. MUAV가 실전에 배치되면, 적 전략 표적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작전지휘 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방위사업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한항공은 MUAV 체계 종합 업체로서 공군의 전력화 일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하이닉스, 'PQC21' 고객사 공급

QLC 기반 cSSD 점유율 확대

SK하이닉스가 AI PC 시대를 이끌 차세대 고성능 저장장치 설루션을 선보였다.

SK하이닉스는 자사 최초로 개발한 321단 쿼드러플 레벨 셀(QLC) 낸드플래시 기반 SSD 제품인 'PQC21'의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사에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낸드는 데이터 저장 단위인 셀에 몇 비트(Bit)를 저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SLC(1비트), MLC(2비트), TLC(3비트), QLC(4비트), PLC(5비트) 등으로 나뉜다.

다. 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다.

PQC21은 고용량·고성능·저전력 특성을 겸비한 차세대 스토리지 설루션으로, 특히 AI PC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저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제품의 핵심은 고층 적층(321단)과 QLC 기술의 조합이다. 셀(Cell) 하나에 4비트(Bit)를 저장하는 QLC의 강점을 활용해 단위 면적당 저장 용량을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1TB(테라바이트), 2TB 두 가지 용량으로 제품을 출시하며,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현재 시장 주류는 TLC 기반 제품이지

만 최근 AI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함에 따라 고용량 구현에 유리한 QLC의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DC에 따르면 전 세계 cSSD(PC·랩톱용) 시장에서 QLC 낸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2%에서 오는 2027년에는 61%로 늘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오는 4월부터 글로벌 IT 기업인 텔 테크놀로지사를 시작으로 본 제품의 공급을 본격한다. 이후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공급을 발판 삼아 차세대 AI PC 시장 내 스토리지 주도권을 확보하고, QLC 기반 cSSD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TV·사운드바 등 '탄소저감' 인증

프리미엄 제품 전반 탄소중립 실현

삼성전자의 2026년형 OLED·더 프리미엄 프로 TV와 사운드바 등 14개 모델이 독일 'TUV 라인란드'로부터 '탄소저감'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RGB TV와 미니LED TV 등 20개 모델에서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하며 프리미엄 라인업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Neo QLED TV를 통해 4K 이상 해상도를 가진 TV 최

초로 탄소저감 인증을 획득한 이후 ▲QLED ▲OLED ▲라이프스타일 TV ▲모니터 ▲사이니지 등 다양한 제품군의 탄소 저감 인증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올해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RGB·OLED·더 프리미엄 프로 등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TV뿐 아니라 제품군 전반으로 탄소 중립 노력을 확대하며 2026년형 사운드바 Q990H는 '탄소발자국'과 '탄소저감'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차현정 기자